

위축된 창업지원... 공공기관이 나선다

한전 16억원 투입...광주·전남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을 50억원 규모...농어촌공사·인터넷진흥원 등 맞춤 지원

올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지역민들의 창업을 돕는다.

14일 혁신도시 기관들이 지난 3월 확정된 '지역발전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하나로 지역 창업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은 6개 사업을 대상으로 3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지역 창업가들을 도울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16억원 규모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이다. 한전은 이 펀드를 운용하며 광주·전남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분야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사업과 ▲사내벤처 창업 지원 ▲지역 청년·중장년 창업자원을 발굴한다. 지역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입주보육'도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일 무료 교육을 펼친다. 이른바 '신재생창업스쿨'은

연중 운영된다.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은 농업 신기술 개발·교육에 힘을 기울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신안에 0.7ha 규모 경영실습용 농장을 조성해 지역 농업인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에 연구개발(R&D) 코디네이터 기회를 제공하고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인증을 지원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역대학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동아리를 키우며 청년창업자를 발굴한다. 또 진흥원이 마련한 KCA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기업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데이'와 투자자 연계를 위한 '데모데이' 등이 연중 열린다. 바리스타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은 진흥원에 마련된 '카페 760'에서 창업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혁신적 아이템을 갖춘 사

올해 혁신도시 지역 창업기업 지원사업 (단위: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16억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	9억1000만
	사내벤처 창업지원	3억
	지역청년 창업 지원	2억7900만
	지역 중장년창업 지원	2억7901만
전력거래소	창업기업 입주보육	1억3000만
	신재생창업스쿨 1일 무료 교육	800만
농어촌공사	나주·신안 경영실습대농장 조성	12억
	광주전남 R&D 코디네이터	150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역 기술인증제도	200만
	사내벤처 지원	2억5000만
인터넷진흥원	대학생 창업자 발굴	500만
	KCA창업지원센터 간 네트워킹 확대	400만
	KCA창업지원센터 투자유치	720만
	지역 창업실습형 '카페760' 운영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49억7600만

내벤처를 키울 계획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다음달 15일까지 국내 정보보호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0년 K-스타트업 정보보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두 25개 팀을 선발해 초기창업기업과 성장기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개발 지원금 총 3000만원과 전문가 멘토링, 경영상담, 지식재산권 및 홍보물 제작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들, 각종 사업 온라인 진행



전력거래소가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기술평가 온라인 안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공>

전력거래소·aT 등 참여

혁신도시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사업을 비대면 형식으로 바꾸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회원사 10여 곳과 함께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설명회'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처음 주최한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는 10개 회원사 30 여명이 참여했다.

안건은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용도로 국한했던 기술적 특성자료를 계통운영 부문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설명회는 전력시장·전력계통 기술자료를 종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실무협의회에서 검토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 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co.kr)를 통한 온라인 경매를 본격 확대한다.

지난해 공사는 농산물 유통단체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경

매를 시범 운영했다.

양파, 깬마늘, 무, 배추, 감귤, 수박 등 선정된 6개 품목은 올해부터 매일 또는 매주 온라인을 통해 경매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1월1일~4월13일 총 224t 물량이 온라인 거래됐다. 지난해 5월~12월 시범 경매된 9개 품목의 경매 실적은 약 685t에 달한다.

이번에는 영상을 활용해 상품을 소개하며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개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온라인 경매로 유통단체를 줄여 생산자는 출하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산지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받으며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앞으로 표준화·규격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신규 온라인 경매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온라인 경매 참여사를 모집하고 있다.

오정규 유통이사는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경매가 새로운 농산물 유통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코로나19 위기극복' 앞장

한전KDN, 50억원 출연

한전KDN은 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총 50억원을 출연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8일 한전KDN은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맺고 기존 예탁금을 포함해 총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지원 대상에는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소상공인은 1.4~1.5% 대출금리와 추가 금리감면을 적용 받는다.

한전KDN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관 입주사 임대료 30% 인하 ▲나주사랑상품권 확대구매 시행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농산물 구매 ▲일직원 현행 봉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호시설에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최근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장터'에서 구매한 물품을 선보이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 돕기 '금요장터'

장터 확대 운영 검토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금요장터'를 이달까지 나주 본사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광주지역 15개 업체가 모인 '가치기움 사회적협동조합'과 전남 11개

업체로 구성된 '전남상사 협동조합'이다. 지난 10일 열린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면마스크와 우리밀 빵 등 농산물·생필품 39종이 판매됐다. 직원 80여명은 이날 사전 주문 방식으로 200여개 물품을 구매했다.

공사는 지역 중소기업·농업인 물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장터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호물품의 견본품을 상시 전시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상생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매와 판로개척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웹툰·모바일게임...나도 콘텐츠 창작해볼까

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 교육생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2020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콘텐츠 장르별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해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창작자 육성사업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5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선발은 이달 초 멘토링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된 20개 플랫폼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음악, 공연·뮤지컬, 방송·영상, 웹툰·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6개월 간 270여 명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예비 창작자들을 위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6개월간 월 120만원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집체 교육, 네트워킹, 성과발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지금까지 총 1813명의 창작자를 양성했다. 지난해 교육생 확보율은 웹툰 '우리는 매일매일'을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해 구독자 46만명을 달성했으며, 이승환이 개발한 모바일게임 '그레이트 소드'는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넘겼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예비 창작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진흥원 누리집과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